

다니엘서 - 제65번

예언의 계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사건과 말세에 전개되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1-29

2020년 7월 18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개혁 운동에 첫 번째 실망이 찾아왔다. 그것은 셋째 화의 역사, 곧 늦은비의 역사이자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그 역사는 거룩한 역사의 모든 개혁 운동에 의해 대표되어 왔고, 더 구체적으로는 밀러파 운동의 역사로 대표되었으며, 열 처녀의 비유로 예증되었고, 모든 선지자가 확인한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2020년 7월 18일은 그 운동의 첫 번째 실망을 뜻하며, 따라서 열 처녀의 비유와 하박국에서 말하는 지체기의 도래를 표시한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그릇된 공표로 이끌었던 동일한 증거가 참된 날짜를 식별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그때 열 처녀의 비유의 지체기는 현재 진리로 인식되었고, 그 지체기는 하박국 2장의 지체기와 동일한 것이었다. 열 처녀의 비유는 글자 그대로 반복되며, 그러한 현실은 그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슬기로운 처녀가 될지 미련한 처녀가 될지의 후보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주류는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도래로 시험을 받았고,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예언이 지나가자 밀러주의 역사에서 개신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로마를 향해 목적 없이 표류하도록 뒤에 남겨졌다.

밀러파는 지체의 때를 열 처녀 비유의 성취로 보았을 뿐 아니라, 하박국서에서 비록 지체할지라도 그 환상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동일한 예언적 이정표임을 보았다. 이어 하박국은 잘못 제시되어 첫 실망을 초래했던 그 환상이 마지막에 '말할' 환상임을 확인한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요, 마침내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첫 번째 실망을 낳은 메시지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것으로 인정될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였지만, 여전히 최초의 잘못된 선포에서 사용되었던 이전의 예언적 논증들에 근거해 있었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옛 언약의 백성들이 먼저 시험을 받았고, 그 후에 새 언약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개신교도들의 시험은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첫째 천사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둘은 같은 천사다)가 강림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들의 시험은 첫 번째 실망과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도래로 종결되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밀러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첫 번째 실망 때 둘째 천사가 임하면서 시작되었고, 화이트 자매가 둘째 천사에 합류하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로 묘사한 한밤중 외침이 임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밀러주의자들은, 그들 주위에 쏟아지고 있던 그 기별을 알아보지 못한 밀러주의자들과 분리되었다.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임했고 지체하던 목사가 그때 말하였다.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에서, 먼저 옛 언약의 백성이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백성이 시험을 받았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시험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첫 음성과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둘은 같은 천사이다)가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왔을 때 시작되었다. 그들의 시험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 끝났다.

셋째 천사의 운동 안에서 14만 4천에 대한 시험은 첫 번째 실망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고,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임함으로써 마무리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지금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금 그들 주위 사방에 내리고 있는 다면적인 기별을 알아보지 못한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 분리된다.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두 번째 '음성'이 말한다. 이는 또한 '지체하던' 환상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큰 외침으로 '점점 고조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낸다.

한밤중의 외침은 앞선 천사와 합류하는 많은 천사들로 상징된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사들은 메시지를 상징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참된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주도한 선구자로 지목된 이는 사무엘 S. 스노였다. 그 역사에는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에 대한 스노의 이해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발전해 갔다는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 역사는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종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2023년 7월 말부터 공개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이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십사만 사천의 인침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한다. 또한 땅의 짐승의 두 뿔이 둘 다 '죽음과 부활'을 겪는다는 계시를 포함하는데, 그들은 짐승의 우상과 병행하며, 같은 역사 속에서 '여덟째는 일곱 중 하나'라는 예언적 수수께끼를 성취한다. 그것은 또 일곱 우리의 '감추어진 역사'와 관련된 계시들을 포함하며,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1989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진리들과 함께 밀러의 역사의 모든 진리들을 엮어 주는 실로 드러남에 따라, 버린 바 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예언적 수수께끼를 성취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22-24.

윌리엄 밀러가 처음 발견한 "보석"(그리고 보석은 돌이기도 하다)인 그 "돌"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다. 앞선 글들에서, 안식일 계명의 구조와 문구가 레위기 25장에 제시된 일곱의 거룩한 주기의 구조와 동일함이 보여졌다.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일곱째 해에 땅이 쉬는 것을 예표하였고, 두 계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고려하면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1년을 나타낸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인 '일곱 때'에 관해 밀러가 선포한 이해가 '하루'로 표상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주께서 하늘과 땅을 옛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칠 년의 거룩한 주기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마치신 후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악한 자들을 처참히 멸하고, 제때에 그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킨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21:40-45.

포도원의 비유는 옛 선민은 제쳐두고 나라가 새로운 선민에게 주어지는 비유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버려진 "돌"은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돌"이다. 그 "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문맥에서 성경적 진리여야 하는데, 그것은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만 그리스도의 의가 남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돌"은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교리이며, 예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 "돌"이 그리스도라고 밝힌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10-12.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는 '돌'이라는 상징을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도, 옛 언약의 백성이 제쳐지고 그가 말하듯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새로운 택하신 백성이 선택되는 동일한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귀한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며, 너희도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고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나니,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며, 그렇게 되도록 또한 정하여진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4-8.

베드로는 옛 선택된 백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그들도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다."

예수는 토대에 대한 모든 성스러운 그림에 의해 표현된다.

이미 놓인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11.

밀러파가 세운 기초는 만세 반석(그 돌)이었다.

"경고가 주어졌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기별이 이르렀을 때부터 우리가 줄곧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만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여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으며 빛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이 놓이게 된 그 기초 위에서 발을 떼어 놓을 생각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만세의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때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만세반석과도 같은 밀러주의 기초의 일부가 된, 밀러가 발견한 첫 번째 보석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그리고 그 '일곱 때'는 막 밀러주의 기초를 세운 밀러주의 개척자들에 의해 가장 먼저 제쳐진 기초적 진리였다. 그 기초석을 거절할 자들은 바로 건축자들이었다. 그 '돌'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날이기도 한데, 그가 일곱째 날을 안식의 날로, 일곱째 해를 땅이 쉬는 해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1863년에 그 기초석은 거절당했지만,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걸림돌'이 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의 메시지는 14만 4천의 개혁 운동의 주제이며, 시험 과정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즉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11일이 '동풍의 날'의 도래였다는 예언적 특징에 관하여 재림교회는 침묵했다. 2020년 7월 18일, 그 큰 성의 거리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뒤에 남겨졌다. 재림교회의 시험은 끝났고, 이슬람의 메시지를 인식한다고 공언해 온 이들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2023년 7월 말까지 거리에서 죽은 채 방치되었다가, 그 죽은 마른 뼈들은 에스겔의 첫째 기별로 일으켜졌다. 에스겔의 둘째 기별은 셋째 화의 이슬람의 네 바람에 대한 기별로서, 지체되었던 이상이자 그 운동의 전 기간의 주제인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점진적으로 인봉이 풀려가는 것을 대표한다. 이어서 여러 진리들이 인봉에서 풀려났다. 이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다면적인 기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죽은 마른 뼈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진리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맨 먼저 거절했던 진리였고, 그것은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의 전환을 표시하는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는 인침의 메시지이므로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굳게 자리 잡아야 한다.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던 기간이 '일곱 때'의 흠어짐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를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1798년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린 진리를 상징하는 밀러의 보석들은 말세의 처녀들에게 하나의 시험이 된다.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경험은 밀러의 첫 번째 보석으로

상징되며,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은 셋째 화의 이슬람 기별로 상징된다. "일곱 때"로 상징된 회개와 고백에 대한 부름은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되는 사역을 가리키며, 이는 "마레" 환상으로 상징된다.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에 대한 "지적" 이해는 "chazon" 환상으로 표현되며, 둘 다 인침을 받을 자들에게 필요하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여리고를 재건하기로 선택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버렸다. 여리고는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으로도 표현되는 풍요의 상징이다.

그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들 가운데 하나인 크고 부유한 여리고 성이 길갈에 있는 그들의 진영에서 조금 떨어진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열대의 풍성하고 다양한 산물이 넘치는 비옥한 평야의 경계에 위치한 이 교만한 도성은, 궁전과 신전이 사치와 악행의 온상이 되었고, 거대한 성벽 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주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으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에게 바쳐진 도시였다. 가나안인의 종교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가장 타락한 것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벳브올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그들의 마음에 아직도 생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방의 성을 혐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부조와 선지자, 487.

1863년에 그들이 여리고를 재건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말세에 진리(보석)가 되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일곱 때"였다. 이는 그 진리가 밀러주의자들의 운동 속에서의 재림운동의 시작과 십사만 사천의 운동 속에서의 재림운동의 끝을 하나로 엮어 주기 때문이다. 그 보석인 "일곱 때"는 또한 "주께서 만드신 날"이며,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슬람이라는 주제는 옛 선택된 백성과 새로 선택된 백성 모두를 정결케 하는 주제이며, 그 이중의 정결은 "동풍의 날"이었던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 날에 파수꾼들은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비유를 선포하실 때 부르셨던 바로 그 노래를 불러야 했다. 십사만 사천은 모세의 노래("일곱 때")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수금을 들고 그 유리 같은 바다 위에서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5:2, 3.

'어린양'은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이천오백이십일의 한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로써 그분의 생명과 피의 희생(그분이 그 언약을 확증하신 것)을 레위기 26장의 모세의 '그의 언약의 다툼'과 함께 꿰어 하나로 이으셨다.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는 예언적 역사의 chazon의 노래이자 그의 '나타나심'의 mareh의 노래이다. 그것은 다니엘 8장의 두 환상이 나타내는 바와 같은 지적이고 영적인 이해의 노래이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심판을 받고 지나가며, 동시에 새로이 택함받을 백성이 선별되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이다. 그 선별 과정은, 그리고 따라서 그 노래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이 뿌리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움돋아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그를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를 치셨느냐? 혹은

그가 죽인 자들에게 가한 살육과 같이 그를 죽이셨느냐? 분량을 정하여, 그것이 뺏어 나올 때 너는 그것과 다툴 것이며, 그는 동풍의 날에 거친 바람을 멈추시리라.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죄될 것이며, 이것이 그의 죄를 없애는 모든 열매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백악처럼 만들 때에 숲들과 형상들은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무하게 되고, 거처는 버려져 광야처럼 남을 것이며, 거기에는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가지들을 먹어 치우리라. 그 가지들이 시들면 꺾여 나가고,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태우리니, 이는 이 백성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드신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지으신 이는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 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에서부터 애굽의 시내까지 털어내실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하나 모일 것이다.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려 하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를 경배하리라. 이사야 27:6-13.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구절들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임할 일요일법까지를 지목하고 있다. 6절은 뿌리를 내리고 이어 꽃이 피고 봉오리가 맺히며 마침내 열매가 땅에 가득 차게 되는 식물의 시작을 가리킴으로써 전체 역사를 가리킨다. 땅을 가득 채우는 그 열매는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일요일법 위기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곡간으로 그의 열매를 거두어들이시는 동안, 동시에 바벨론에 심판을 내리신다. 땅이 열매로 가득 찬 때에 일어나는 그 심판은 7절에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면서 나타난다. "그가 자기를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를 치셨느냐? 혹은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죽임과 같이 그가 죽임을 당하였느냐?"

그다음 8절에서는 늦은 비가 뿌려지는 일이 '분량대로'라는 표현으로 표시된다. 식물들이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은 비이며, 늦은 비의 시작이 표시될 때 그것은 '싹이 돋을 때 분량대로' 시작된다고 표시된다. 늦은 비가 시작될 때 그것은 '분량대로' 부어지는데, 추수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면 한량없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영혼은 오류의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갈망할 것이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아는, 깨우침을 받은 백성이 생기기 전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이고 전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그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기심과 자기 방종이 이토록 뚜렷하고, 말로 표현하면 가인의 그 대답,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할 만한 정신이 팽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부으실 수 없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사방에서 점점 짙어지며 만물의 끝이 임박했음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진리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잠들어 있는 활력을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비쳐 온 빛에 비례하는 어둠이 이 영혼들을 덮칠 것이다. 최후의 결산의 큰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의 그림자조차 없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고 행하고 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실과 동정심과 열성을 통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능력과 실재가 논박될 수

없음을 드러내지 않았는지에 대해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7월 21일.

화이트 자매는 그 구절을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내려오는 때로 지목한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으심"이라고 말한다. 이 글들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해 온 또 다른 구절에서, 그녀는 "뉴욕의 큰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그의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는 매우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이 있었다. 그는 그 둘레에 울타리를 두르고 돌들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다. 그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가 맺혔다.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원하건대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거늘,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는 그 울타리를 걷어 버려 그것이 짐승들에게 먹혀 버리게 하고, 그 담을 허물어 그것이 짓밟히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치지도 않겠고 김도 매지 않겠으며, 오히려 가시덤불과 쪼레가 돌아날 것이다.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심은 것이다. 그는 정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포박이요;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부르짖음이로다. 이사야 5:1-7.